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09년도 표어

섬겨야 합니다 (갈 5:13, 전 11:1)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발행인: 이 중 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시편 124:1-8)

If the Lord had not been on our side (Psalm 124:1-8)

본 시는 이스라엘이 국가적 위기에 처했을 때 화를 면하게 된 사람이 그것이 전적으로 여호와와 은총임을 상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 시입니다.

오늘도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Psalm 124 is a psalm of a man thanking God for helping him escape the anger of the enemy. While Israel was in the midst of a national crisis, He recalls that God had given grace, and praises the Lord.

Even today, the God who chooses His people, also rejoices to lead us, protect us, and be with us.

1. 무슨 '만일' 인가

성도가 성도라는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 남다른 위협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남모르는 구원도 수없이 경험하는데 이러한 구원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고도 이런 구원이 가능했겠는가를 담대히 물어야 하고 또 정직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시인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됐을 지를 다음의 6가지 고백합니다.

- ① 우리는 산 채로 삼킴을 당했을 것이다(3절).
- ② 물이 우리를 휩쓸었을 것이다(4절).
- ③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다(4절).
- ④ 넘치는 물이 모든 것을 삼켰을 것이다(5절).
- ⑤ 짐승의 이에 씹혔을 것이다(6절).
- ⑥ 울무에 걸린 새처럼 되었을 것이다(7절).

2. 진정 무슨 '만일' 인가

위에 언급된 6가지가 외형적, 육신적 고통이라면 죄와 형벌에 관한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진노와 심판, 죄로 인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이 임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3. 그러므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본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사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 노래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 받은 자이고, 택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시 121:8).

이 말씀을 의지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question courageously and answer it honestly.

The psalmist answers the following question with six points, "If God had not been on our side, what would have happened to us?"

- (1) The enemy would have swallowed us alive (v. 3).
- (2) The torrent would have swept us away (v. 4).
- (3) The flood would have engulfed us (v. 4).
- (4) The raging waters would have swept all of us away (v. 5).
- (5) We would have been tom apart by an animal's teeth (v. 6).
- (6) We would have been like a bird trapped by a fowler's snare (v. 7).

2. What if indeed?

If the six points above had become a reality, would they not have been because of sin and punishment? If Jesus Christ had not been crucified to death for us, we would have been punished with the sufferings of wrath, judgment and sin eternally. If Jesus had not redeemed us from sin, we would have been lost as a sinner.

3. Praise be to the Lord

This psalm elaborates on the thought, "If the Lord had not been on our side, we would have perished." Therefore, we praise the Lord, because the Lord has been on our side. The core meaning of the word 'thank' means that we should worship God. If God is truly on my side and with me, then we must please Him, thank Him, and praise Him.

My beloved Christians!

Every day, we need to confess how God helps us, rejoice that He does help us, and thank Him. We are chosen by Him, and only chosen people can be the object of His grace. Psalm 121:8 says, "The Lord will watch over your coming and going both now and forevermore." By this word, I sincerely pray that you and I will be protected and led by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이종윤 목사 한장총 대표회장에 추대

장로교회 정체성 회복위해 헌신기로 다짐

장로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앞장서온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지난 24일(화)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100주년 기념관에서 26개 회원교단의 총회장·총무·총대들이 제27회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 한 해 동안 장로교회 연합을 위한 가장 활발한 사역을 펼친 것으로 평가된 이종윤 목사를 대표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이종윤 목사는 이날 취임사에서 “사분오열된 한국장로교회가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사상에 입각한 장로교회로 거듭나서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피력했다.

또한 ▲대형교단과 소형교단 간의 상호존중과 화합 ▲세계교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적 리더십 발휘 ▲장로교의 날 행사를 통한 한국교회 연합의 장 마련 ▲신학교 인준위원회 조직 및 활성화 등의 포부를 밝혔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장로교회 정체성 회복운동, 교회연합과 일치를 위한 장로교 지도자 간담회, 칼빈탄생500주년 기념행사, 제1회 장로교의 날 행사 및 여러 차례의 학술발표회 등을 통해 어느 해보다 활발하고 건설적인 활동을 펼쳐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9 사명자대회 승전 보고

- 오늘 찬양예배시간에 -

교회설립 18주년을 맞아 10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 계속된 50일간의 기도와 전도의 대장정인 2009 사명자대회 승전 보고가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있다.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에 연속 기도에 동참한 성도의 수는 연인원 3,619명, 성경연속통독- 16회,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연인원 3,780명이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고, 태신자 880명을 작정하여 이들에게 이슬비 양육 편지를 발송하며 교회학교 별로 친구 초청 잔치를 통해 잃은 양을 찾는 일에도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50일 동안 계속된 24시간 연속 기도회에 하루도 빠

짐없이 개근한 성도가 10명, 80% 이상 참석한 성도가 4명으로 기도에 열심을 낸 성도들이 여러 명 나와 성도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개근한 성도는 진경자 집사(1교구) 이현주 집사(4교구) 조정옥 권사(11교구) 정을순 집사(2교구) 김은희 집사(5교구) 문금희 집사(13교구) 하영숙 집사(3교구) 이남성 집사(9교구) 김금준 집사(4교구) 이양철 집사(11교구)이며 이중 김금준 집사와 이양철 집사는 매일 4시간 이상 기도에 힘을 썼다.

80%이상 참석한 성도들은 황경자(1교구)정경자 권사(4교구) 이부자 권사(9교구) 이미송 집사(13교구)이다.

2010년도 순결서약식

2010년 1월 3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2010년도 순결서약식이 열린다. 순결서약식은 우리교회가 13세 이상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내가 기록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 11:44)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의 올바른 개념을 정립하며 성경적 가르침을 따라 순결한 생활을 함으로써 순결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매년 첫 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거행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회는 오늘부터 아직 순결서약식을 하지 않은 만 13세 이상 미혼의 남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순결서약식 참가신청을 받는다. 참가신청서는 각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와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접수는 12월27일(주)까지 받는다. 순결서약식 접수 시에 후견인의 이름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이종윤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우리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일에 거행한 이래 15년째 계속하여 거행하고 있으며 순결서약을 한 이들에게는 항상 서약을 상기할 수 있도록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 오리엔테이션(예배 및 교육) : 12월 31일(목) 오후 8시 / 101호
- 학생과 부모 기도회: 12월 31일(목요일) 오후 9:30 / 101호

세계복음화 위한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운동」 시작된다

한 가정 · 한부서에서 1구좌씩 후원

우리교회는 2009년 사명자대회를 통해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 운동을 위해 50일 동안 기도하였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한 1 가정 1 선교사 후원운동'을 시작한다.

본 후원운동은 서울교회 선교사 100명 이상 파송이라는 선교 비전에 모든 성도들과 기관, 부서들이 참여하여 모든 성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어 주님의 지상명령에 참여하

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것으로 1구좌를 십만원(월)으로 하고, 형편에 따라 1/2구좌도 가능하며, 어린이/청소년은 1구좌를 오천원으로 하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선교의식을 가지고 참여를 하도록 하였다.

한 가정 한 선교사 후원운동의 첫 헌금은 2010년 1월부터 드린다.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참여하여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돌리도록 기도한다.

목회정책발표회

“하나님을 기쁘시게”(요8:29, 시 37:4)라는 표어로 출발하게 될 2010년도 우리 교회의 모든 살림(안)을 점검하는 목회정책발표회가 12월4일(금) 오전 11시30분 아가페타운에서 열린다. 행동지침으로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2. 성수 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3. 바른 신앙,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을 강조하는 교회로 제시하며, 이날 발표회에는 모든 교역자들과 장로들이 참석하게 된다. 봉사는 무지개회원들이 한다.

2009년 성탄감사헌금 군선교 위해 사용기로

우리교회는 12월25일(금) 성탄 예배 감사헌금의 일부를 군선교를 위한 '사랑의 온차 나누기'에 사용기로 하였다. 헌금은 최전방 초소에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사용할 예정이다.

다음주일부터

2010년도 섬김위원 임명

다음주일부터 2010년도 섬김위원 임명이 시작된다.12월6일은 당회 산하 기관의 섬김위원과 교구간사, 서리집사(남, 녀), 12월13일에는 찬양대원, 12월20일에는 교회학교 교사들이 임명될 예정이다.

교역자·직원 연임되다

우리교회 당회는 교역자(부목사·협동목사·전도사·교육목사·교육전도사·학원전도목사), 직원 전원을 2010년도에도 시무할 수 있도록 연임투표에 찬성표를 던졌다. 교회예산의 60% 이상을 밖으로 내보내려는 교회 시책에 따라 내부인원을 최소화하여 일인 삼인역을 해야 하는 우리교회 교역자와 직원들의 희생적 봉사에 감사의 머리를 숙인다.

화재·도난 예방책 발표

겨울철과 연말연시를 맞아 화재와 도난의 위험이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교회내 모든 방에서 온열기·커피포트(coffee pot) 등 전열기 사용이 전면 금지 된다.

또한 식당, 지하주차장, 교육실, 찬양대 연습실 등 열린 공간에서는 성도들 각자 도난방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고역자 가정 탐방

가장 고귀하고 행복한 삶

유문건 목사 · 김안성 목사 가정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하던 해, 제 아버님께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시어 신학교에 입학하셨습니다. 그 당시 제 어머니께서는 이미 신학교를 졸업하신 후 풀타임 여전도사로 사역하고 계셨고, 그렇게 저희 가정의 신앙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나는 마음으로 뒤늦게 시작하신 아버님의 신학공부와 부모님의 목회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바라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비록 힘들고 고된 길이지만, 목회자로서 한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행복한 삶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고, 대학원에서 각각 신약과 구약, 포항과 호주 멜본에서는 부목사로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저희에게는 딸 주영(5세), 주아(3세)가 있습니다.

서울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의 영적인 거목이신 이종윤 위임목사님

의 목회와 신학을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배울수 있게 하신 점도 감사하고, 서울교회 성도들처럼 따뜻하고 겸손한 분들을 섬길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저는 2010년도에 3, 4교구와 1·2스데반회, 엘리야선교회, 에스더전도회, 대학부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은 제게 귀한 부서들을 맡겨주시고 아내 김안성 목사에게 유년부를 섬길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이종윤 위임목사님과 당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서울교회에서 귀한 사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깊은 배려에 감사합니다.

저는 연세대 신학과(B.A./95년 졸업), 장신대 신대원(M.Div./01년), 장신대 대학원 신약학(Th.M/03년), Harvard divinity school(Th.M/09년)에서 공부하였고, 포항북부교회(현 기쁨의 교회)와 호주 멜본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신대원에서 만나 결혼하였

은 배려에 감사합니다.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도지혜 성도(16교구)



새가족부에 처음 등록하면서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노라고... 이 말을 하고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벌써 8주가 되었습니다. 두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지만 제게는 작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서울교회가 더 이상 낯설지도 부담스럽지도 않게 되었고 용기가 나지 않아 도망가는 일도 이제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 되어 제 마음 속에서 작은 내면의 소리로 다가와서 큰 진동으로 변해 나의 영혼을 아주 크게 흔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에도 적기를 두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발달에도 적당한 시기를 두셨던 것이 아마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거의 3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저의 자갈밭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같이엮으시고 저의 영적인 부분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저의 죄를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였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교만했던 저를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시기가 제게는 바로 지금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끌림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교회를 비롯하여 저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후로는 악한 영에게 틈을 내주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교회에 등록할 수 있게 되었고 8주간 새가족부를 통해 아직도 가끔 차오르는 교만함과 그 뒤에서 나를 괴롭히던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오랜 시간 저에게 다가와 계셨던 하나님을 저는 이제야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조금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기에 더욱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거의 3년을 만져주셨고 이제는 그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을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아서 요즘은 더욱 이종윤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와 닿고 그 말씀이 제겐 응답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브라함과 같이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과의 만남에 열정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저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가족부를 수료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가족부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분들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기도로서 보답하겠습니다.

대림절의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정애신 권사(11교구)

성탄을 기다리는
십이월의 목마름
어둠으로 덮힌
이 땅 위에 빛으로
오시는 이

한해도 저무는 뒤안길
주님 오신 날이 다가오구나
동방의 하늘 내어다 보며
큰 별을 보게 하소서

우리에게 사랑과 축복
화해와 평화를 이루시려고
오신 분께
기쁨의 찬송 부르며
그 이름 높이세

그날이 다가오니
어둠이 물러가네
기다리는 눈빛은 잠들 줄 모르고
한밤에도 빛나게 하소서

이 성스러운 날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가

다함께 세소망의
날이 되길
그날의 환희와 기쁨의
새 아침을
굳건한 믿음으로
다짐하는 한해가 되길!

교회력의 시작, 대림절

교회력은 대림절(待臨節, the Advent)로부터 시작된다. 대림절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이다. 대림절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대망하던 구약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약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절기이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소망의 절기(Season of Hope)이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금년은 11월 29일이 대림절 첫 주일이다. 대림절의 강단 색깔은 절제와 경건과 준비를 상징하는 보라색이다. 강림절(降臨節) 또는 대강절(待降節)이라고도 한다.

편집부

수능생을 위한 기도회에 감사

크리스찬 글로벌 리더를 키우기

김미향 집사(11교구)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웃는 얼굴로 맞으시는 고등부 부장님과 선생님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기도 회실로 안내되어 들어가 보니 빈자리가 없이 가득 메워져 분위기는 이미 뜨겁게 달궂어져 있었습니다.

온 맘을 다하여서 준비하신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믿음의 선물인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양육하며 인도할 것인가 다시 한 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성수주일의 중요성과 믿음과 기도로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점을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으며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에 겸손히 순종하며 정직하게 시험을 치르게 하시며 대학을 진학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하여 불안하고 초조했던 부모님들의 마음은 점차 평안해지며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이들이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

는 기도로 바뀌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지금과 같은 심정으로 자녀를 위해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감히 소원해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야만인으로 키우지는 않겠다는 결심과 다짐을 하면서 지금 내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시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실텐데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수능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각자의 대학 캠퍼스로 나아가 갈 때에 믿음의 자녀로서 대학을 복음화 시키는데 큰 일꾼으로 쓰임 받게 하시며 각자의 비전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민족과 조국 그리고 세계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들로 자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모인 학부모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으며 은혜로운 기도시간을 마쳤습니다.

끝으로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주신 고등부 지도목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우리교회의 새로 결성된 '서울 필그림 남성합창단' (단장: 임상헌 장로)의 찬양으로 드러진다. 남성들만의 육중하고 중후한 화음을 바탕으로 한 믿음의 찬양은 듣는 이로 하여금 경건하고 진지한 신앙인의 모습을 느끼게 할 것이다. '서울 필그림 남성합창단'의 창단은 찬양을 중요시하는 우리교회의 발전된 모습으로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합창단이 될 것이다.

오늘은 '분향을 향하네(김두완 작곡)' 외에 3곡으로 찬양 드린다. 지휘 임훈규 장로, 피아노 반주 홍혜란 선생이 수고한다.

성탄트리 점등식

12월2일(수) 오후 6시30분 들성경 앞

세상을 밝히 비추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2009 성탄트리 점등식이 12월2일(수) 오후 6시30분 들성경 앞에서 열린다.

주님의 나신 성탄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란다.

등정

■ 이종운 목사는 12월 3일 (목) 에든버러 선교사대회 100주년 기념 한국대회 조직위, 4일(금) 한장총 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 피선: 오정수 장로(14교구) 전국장로회연합회 부회장
- 합격: 김주만 성도(16교구 인미나 성도 부군) 제51회 사법시험 박진남 군(16교구 박원일 집사, 최옥조 집사 아들) 제53회 행정고등고시
- 주간식당 봉사: 마리아전도회(11.29) 에스더전도회(12.6)
- 금주의 식사: 전광영 집사 김인숙 권사 가정(법사에 감사하며)



2009 수능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

제 3회 사랑부 천사들의 음악회

지난 15일 주일 사랑부의 '천사들의 음악회'가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은혜롭게 마쳤다.

- ① 기타반의 합주 ② 난타반의 공연 ③ 워십댄스반의 공연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예수님을 닮아 섬기는 자 되게 하소서.
2. 아가페타운이 위치한 청평 주민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3. 서리집사 피택자에게 은혜와 중성심을
4. 공의와 질서가 회복된 사회 이루고 북한의 전쟁위협은 사라지도록

교회오시는 길

